

보도시점 2025. 9. 7.(일) 12:00 (월요일 조간) 배포 2025. 9. 5.(금)

아·태지역 환경협력 구심점, 서울 정책구상(SI) 20주년 정책토론회 개최

- 2005년부터 20년 간 아태지역 21개국, 53개 지속가능발전 사업 실시
- 아태지역 29개국, 90여명 참석, 역내 기후정책 공유 및 기후위기 대응력 제고
- 5단계 사업계획('26~'30)(안) 공개, 국가맞춤형 진단과 후속사업 연계하는 녹색가교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태국 방콕(유엔 컨퍼런스 센터)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공동으로 제20차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 SINGG* 또는 SI)’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Seoul Initiative Network on Green Growth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은 2005년 서울에서 환경부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제5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장관 회의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제안한 역내 협력사업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앞두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 이행 가속화: 아·태지역의 기후회복력 있는 발전’을 주제로 열린다.

*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같은 뜻으로 파리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전 지구적 기온상승 억제를 위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5년마다 제출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이며 유엔에 올해(2025년) 하반기 제출 예정

총 29개국 9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는 △박용민 주태국 한국 대사, △아르미다 알리샤바나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사무총장, △장클로드 푸앵보프 주태국 프랑스 대사, △피룬 싸이야싯따파닛 태국 기후변화 및 환경부 국장 등이 참석하여 개회 연설을 맡을 예정이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아·태지역의 파리협정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 및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별 실행 방안을 공유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을 통합한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이 소개되고, 자연기반해법을 활용한 기후회복력 강화 방안을 공유하는 등 통합적 접근을 모색한다.

아울러 ‘서울 정책구상’ 발족 20주년을 맞아 5단계 사업계획(’26~’30)도 소개한다.

이 사업계획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반 확립’을 목표로, 아·태지역 국가들의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기후의제 주류화를 위해 주요 국제회의 등 국내외 기후행사와 연계하고, 시범(네트워크) 사업은 회원국의 다양한 기후분야 수요에 맞춰 소규모·단년도 사업에서 대규모·다년도 사업으로 확대된다.

특히, 5단계 사업계획에서는 그간 역량 강화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시범(네트워크) 사업을 다양한 관계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지 난제를 분석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도출하는 ‘진단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도출된 해결방안은 환경부의 해외진출 지원 위한 기본계획(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 조사, 탄소중립 및 녹색 공적개발원조(ODA)등과 연계하여 구체화*할 예정이다.

* 26년 정부안 : 프로젝트 공적개발원조 (280억 원) 등

국내기관뿐만 아니라 유엔환경계획 등 국제기구와 세계은행(WB), 아시아 개발은행(ADB) 등 다자개발은행도 사업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서울 정책구상’의 파급력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 정책구상’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자문, 지식공유, 역량강화를 위해 약 101억 원을 지원했으며, 정책토론회(19회)와 시범(네트워크) 사업(21개국, 53개)을 추진했다. 올해도 필리핀 ‘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역량 향상 사업’과 피지 ‘폐기물 에너지화 시스템 역량강화 사업’ 등이 진행 중이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서울 정책구상은 지난 20년간 아·태지역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해 온 환경협력의 구심점”이라며, “5단계 사업계획에서는 국가 맞춤형 진단과 후속사업을 연계하는 녹색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해, 아·태지역의 실질적인 기후대응과 녹색전환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제20차 서울 정책구상(SI) 정책 토론회 개요.
 2. 5단계 사업계획('26~'30)(안) 주요 내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장이재 (044-201-6560)
		담당자	사무관	신영훈 (044-201-6573)



1 추진 배경

- 한국 환경부, UN ESCAP 공동 개최한 제5차 ESCAP 환경개발장관 회의에서 우리 정부 서울 정책구상(SI) 제안*('05.3, 서울)
 - * 아·태지역 빈곤과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 압박에 대한 해법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제시, 이행 수단으로서 서울 정책구상(이니셔티브) 제안
 - 제61차 UN ESCAP 총회에서 승인('05.5)
- 서울 정책구상은 정책토론회, 시범(네트워크) 사업 등으로 연례 추진
 - 제20차 정책토론회는 파리협정 10주년 및 서울 정책구상 20주년을 맞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아·태지역 역량지원 강화

2 토론회 개요

- (목적) 아·태지역 UN ESCAP 회원국들의 구체적인 기후전략 마련을 위한 제도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강화
- (일자/장소) '25.9.8.(월)~9.9.(화) / 태국 방콕 유엔 컨퍼런스 센터
- (참석자) 기후·환경 관계부처,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관계전문가 등
- (주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 이행 가속화 : 아·태지역의 기후회복력 있는 발전
 - 서울 정책구상의 아·태지역 내 지속가능발전 성과 및 기후 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및 지식공유

3 세부 일정

일 자	시 간	주요 내용
9.8.(월)	09:00-9:30	등록
	09:30-10:10	개회사 (좌장 : Ms. Dechen Tsering, UNEP 아·태지역 사무소장)
		- Ms. Armida Salsiah Alisjahbana, UN 사무차장 겸 UN ESCAP 사무총장
		- 박용민 주태국 한국대사
		- Mr. Jean-Claude Poimboeuf, 주태국 프랑스대사
		- Dr. Phirun Saiyasitpanich, 태국 기후변화 및 환경부 국장
		-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영상)
		- Ms. Noura Hamladji, UNFCCC 사무차장 (영상)
	10:10-10:15	영상 : 기후행동 10년
	10:15-10:20	단체사진 촬영
	10:20-11:50	패널토론 : 이행평가 및 환류 (좌장 : 남상민 UN ESCAP 환경개발국장)
	11:50-12:00	폐막사 (Mr. Matias Antonio Senra, 주태국 브라질 대리대사)
	13:10-14:20	세션 1 : NDC 향상, 선언에서 이행으로 (발표 및 패널토론)
14:20-14:40	휴식	
14:40-16:00	세션 2 : 국가사례 I : NDC를 이행으로 전환하기 (세미나)	
	- 일본, 네팔, 몰디브, 인도네시아	
9.9.(화)	10:00-11:40	세션 3 : 기후회복적 발전을 위한 정책통합
	13:00-14:20	세션 4 : 국가사례 II : NDC를 이행으로 전화하기
		- 튀르키예, 몽골, 피지, 싱가포르, 조지아
	14:20-14:40	휴식
	14:40-16:00	패널토론 : NDC 부문별 이행 가속화 위한 지역 파트너십
-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 이니셔티브 그간 성과		
	-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 이니셔티브 5단계 논의	

비전

기후 위기 대응으로 탄소중립 기반의
아태지역 녹색성장 공동체 구현

목표

5차 계획기간('26~'30) 내에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반 확립



추진
과제

기후 의제 주류화

- ① 5차 계획 추진범위 구체화
- ② 목표-주제-사업의 일관성 담보
- ③ 정보 공유기능 강화



논의 기능 강화

- ① 연도별 주제 논의 체계
- ② 사업 설계 기능 부여
- ③ 국제 논의 연계

유관사업 연계성 강화

- ① 사업 대상유형 확대
- ② 진단사업 시행
- ③ 유관사업 연계